

대학-지역 소통의 장 '캠퍼스 텃밭' 분양

전북대, 119구획 분양 23일까지 농생대로 신청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캠퍼스 텃밭을 마련, 시민에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운영돼 온 전북대 캠퍼스 텃밭은 그간 대학과 지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해 농생대 인근 부지에 119 구획의 텃밭을 분양해 개장식과 봄, 가을 작물 모종 나누기 등을 통해 지역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전북대는 올해도 1,456㎡ 면적에 모두 119 구획의 캠퍼스 텃밭을 마련해 지역민과 구성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이 중 106개 구획은 시민과 구성원에 추첨을 통해 분양되고, 13 구획

은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특별 분양된다. 분양되는 텃밭 규모는 1구획 당 약 13㎡다.

전북대는 17일부터 23일까지 텃밭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를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 공지에서 다

운해 이메일(agriculture123@jn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4월 9일 오후 2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 및 텃밭 위치 안내가 이뤄지고, 4월 23일 캠퍼스 텃밭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분작물 재배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는 오리엔테이션 당일 모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꽃말과 텃밭 가꾸기 가이드 자료, 기초 농사법 교육, 현장기술지도 등을 지원한다.

김동원 총장은 "캠퍼스 텃밭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점육립대가 지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코로나 19 상황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도 힘써가며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음악아카데미, 음악영재 모집

신입생 50명 모집... 사회통합전형 50% 선발·전액 무료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가 음악에 재능 있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됐다.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분야에 총 50명 뽑는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기회균등대상자 학생을 모집인원의 50%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입생 선발 요강은 4월 15일까지



지며, 접수는 4월 8일~15일까지 전북음악아카데미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sicgifted>)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전북음악아카데미 이메일(musicgifted@j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4월 24일 실기와 심층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https://blog.naver.com/musicgifted>)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63-219-5228로 하면 된다.

한편 선발 학생들은 도교육청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는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주말에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생애단계별 독서교육 개강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어려서부터 즐거운 책 읽기 습관형성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으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특성을 살린 '책으로 행복한 생애단계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애단계별 독서교육'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가족 간 함께 책을 읽고 하브루타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독서하브루타', 그림책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 및 인형극 등을 배우는 '인형극놀이', 시대별 역사책을 활용해 역사인식을 증진시키는 '청소년역사인문학'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광휘 관장은 "생애단계별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책 읽는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독서코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아·태 마스터스 화이팅" 2021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주관 단체인 전북도 26개 종목단체 사무국장(전부이사)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주시장과 청년정책 간담회 진행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위한 실효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지난 1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해 김봉정 과장, 김은주 과장, 임미화 교수와 학년별 대표 학생 8명이 참석했다.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의 취업 애로 사항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 청년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인재 육성 아이디어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했다.

간담회는 '고용 일자리 영역'과 '주거 복지 영역'으로 나눠 논의됐다. 특히, 다른 도시 청년정책과 비교해

전주시민의 특색있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특정 대상에만 편중된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대표 학생들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와 같은 청년 정책 사업이 확대되고, 주거 부분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수요자 전수조사와 균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자금 지원과 같은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정책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자살·학폭 예방 이모티콘 배부

'다음이', 카카오톡에 무료 제공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제작한 '다음이'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이모티콘은 다람쥐를 캐릭터로 한 '다음이'다. 다음이는 나 다음, 너 다음, 우리 다음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친구 사이 공감과 관심을 확산

시켜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다음이가

'너라서 좋아', '힘내 힘내', '잘될거야', '괜찮아', '사랑해', '뽀뽀지 말만해' 등과 같은 응원 문구를 전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검색한 후 친구로 추가하면 자동으로 이모티콘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채널을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원수 제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